

집-나무-사람 그림 검사(HTP)*

신 현 균**

목 차	
I. 구성 및 실시	III. 사례
II. 해석	

그림 그리기 같은 창조적인 작업은 개인의 내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많이 반영한다. 인류는 문자라는 상징을 사용하기 이전에 그림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활동을 기록했고, 아이들도 글자를 쓰기 전에 먼저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는 활동은 원초적이고 심층적인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림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피검자들은 개인의 발달사와 관련해 자신 및 자신의 환경과 관련된 경험들을 그림에 투사한다 (Hammer, 1958). 그림 그리기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내담자의 정서 상태, 대인관계의 특성, 자기 개념, 자아 강도, 현실 판단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상담 기간이나 상담의 방향 등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심리 검사에 비해 HTP 검사가 가지는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 비언어적 기법으로서 어린이나 교육수준, 지능이 낮은 사람, 문화적 결핍이 있는 사람, 지나 치게 부끄럼을 타는 사람, 방어가 심하거나 철회된 사람, 언어장애자에게도 실시가 가능하다.

* 2001년 12월 1일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제14차 학술세미나
“상담과 심리검사 - 투사적 검사의 활용”에서 발표된 내용

** 서울임상심리연구소

- 실시가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
- 언어 제약이 없어 출신 환경이나 문화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 자기개념, 성격양식, 갈등 영역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실시상의 편리함과 무의식적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이점으로 인해 그림 검사는 지속적으로 발달해 왔다. Machover(1949)는 아동의 투사적 그림들에 대한 상세한 임상적 해석을 제시하였고, Hammer(1958)는 HTP를 임상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Koppits(1968)는 발달적인 투사적 채점체계를 제시하였다. Burns와 Kaufman(1972)은 기존의 HTP 검사를 변형시켜 동작성 HTP(kinetic-HTP)를 고안해 한 장의 종이 위에 집, 나무, 사람을 모두 그리되 어떤 움직임이 들어가게 그리도록 지시함으로써 사람-집-나무 간의 관계(거리, 크기 등)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는 동작성 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를 고안해 사용하였다.

I. 구성 및 실시

1. 도구

2B 연필, 지우개, 7×8.5 inch(17.8×21.6 cm)의 백지 4장

2. 자시

비 지시적으로 지시한다. 즉 그리고 싶은 대로 집, 나무, 사람을 그려 보라고 지시하면 된다. 만약 만화나 stick figure를 그린다면 다시 그리도록 할 수도 있다. 많은 피검자들이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저항하는데, 그림 솜씨를 보려는 것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마음대로 그려보라고 격려한다.

3. 검사 실시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장 적게 유발시키는 그림부터 실시하는데, 이는 다소 중성적인 자극에서 점차 자기 상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을 그린 뒤에는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

록 하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한다. 내담자의 반응은 모두 기록하고, 각 그림마다 소요 시간도 기록한다. 검사 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한다. 긴장되어 있는지, 편안한지, 충동적으로 그리는지, 조심스럽게 그리는지 등을 기록하고 내담자가 한 말도 자세하게 기록한다.

순서	그림	종이상태	그림 그린 후 질문내용
1	집	가로	집의 재질, 사람이 사는지, 집안 분위기
2	나무	세로	나무 종류, 나이, 건강상태
3	사람 1	세로	성별, 나이, 직업,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4	사람 2	세로	
			현재의 기분, 성격, 미래의 꿈이나 소망

II. 해석

1. 투사 그림 해석의 경험적 기초

그림 검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험적 근거들이 사용된다(Hammer, 1958).

- 꿈이나 신화, 미술, 환상 등에 대한 정신 분석적, 민속학적 연구로부터 얻어진 상징의 의미
- 신경증적이거나 정신병적인 병리적 환상 뿐만 아니라, 치환(displacement) 등의 방어 기제에 대한 임상적 경험
- 피검자의 연상을 통해 그림에 나타난 상징을 해명
- 상관연구를 통한 경험적 증거
- 정신병 환자의 그림에 나타난 적나라한 상징을 통해, 정상적인 사람의 그림의 상징에 대한 이해를 얻음
- 치료 중 일정 간격을 두고 그림 검사를 실시해, 증상의 변화나 치료과정에 따른 그림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
- 다른 그림 검사나 투사법 검사, 꿈, 사례연구 등과의 일관성
- 실험연구

2. 그림의 구조적 분석

가. 순서 (Sequence)

극히 빛나간 순서로 그리는 경우는 심한 정신병리나 사고 장애를 시사한다. 예를 들어 사람 그림에서 발 → 다리 → 손 → 머리 순으로 그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나. 크기 (size)

평균적인 크기는 종이의 2/3 정도인데, 평균 크기에서 일탈이 심한 경우 피겁자의 자존감이나 자기 보상적인 경향 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지나치게 큰 그림은 공격적인 경향, 과잉 활동, 과대 망상 경향, 조증 상태, 자신의 부적절감에 대한 보상 등을 반영한다. 이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그림은 열등감과 부적절감, 억제하고 수줍어하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들이 보이는 철회 경향, 불안전감 / 우울경향 / 낮은 자아강도를 가진 약한 자아구조, 퇴행적 경향 등을 반영한다.

다. 필압 (pressure)

강한 필압으로 그리는 것은 높은 에너지 수준을 반영할 수도 있고,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사람, 뇌에 기질적 문제가 있는 뇌염이나 간질 환자, 단호하며 야망을 가진 사람, 공격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외현화 될 수 있는 사람, 정신 지체아 등에게서 자주 관찰된다.

이에 비해 약한 필압은 낮은 에너지 수준을 반영한다. 부적절한 적응을 보이는 사람, 우유부단함, 소심함, 두려움, 불안정감을 나타내는 사람, 우울한 사람들에서 필압이 약한 경우가 많다.

라. 선굵기와 선의 질 (stroke & line quality)

(1) 선굵기

단호하고 망설임 없이 확실한 선은 안전감, 완고함, 야망이 있는 사람을 시사한다. 끊어짐 없이 그어진 직선은 결단력 있으며 단호한 사람일 수 있고, 반대로 끊어지고 곡선으로 그려진 경우는 불안전감을 나타낸다. 또 선이 심하게 조각나고 각 부분이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경우처럼 현실로부터 동떨어지고 기태적인 그림은 정신병적인 경향을 시사한다.

(2) 선의 질

스케치하듯이 그리거나 음영이 많은 선은 불안감, 자신감의 결여, 혹은 새로운 상황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를 나타낸다. 선이 짧고 끊어진 경우는 충동적이고 흥분을 잘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마. 세부 묘사 (detailing)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그림에 필수적인 세부요소를 그리고, 그와 함께 필수적이지 않은 몇몇 요소를 포함시킨다. Buck(1948)은 사람, 나무, 집, 그림의 필수 요소를 제시했는데, 사람 그림의 경우 머리, 몸통, 다리, 두 팔, 두 눈, 코, 입이 필수 요소이다. 이들 필수요소를 생략하는 사람은 정신 분열증처럼 심하게 퇴행하였거나, 청소년의 경우 성격장애를 시사하기도 한다.

세부 묘사가 부족한 경우, 에너지의 감소와 관련된다. 사회적으로 철회되어 있거나 우울증을 시사하기도 한다. 반면 지나친 세부적인 묘사는 강박적인 경향, 경직성 또는 현학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지나치게 완벽한 세부묘사에 대해 Hammer는 신경증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불확실하고 혼돈된 상태로 지각하며 자기 통제의 상실을 두려워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완전한 세계를 만들어 내려 하기 때문에 지나친 세부묘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내장 등을 그리는 경우처럼 기태적인 세부묘사는 정신병을 반영한다.

바. 왜곡과 생략 (Distortion & ommition)

그림이 현실성이 없고 왜곡이 많을 때는 현실 검증력이 떨어진 정신병 환자, 정신지체, 뇌의 기질적 장애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에 대한 왜곡은 불안을 반영하고, 특정한 신체부위의 왜곡과 생략은 갈등의 근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사. 대칭 (symmetry)

대칭이 심하게 깨어진 경우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부족한 상태이며, 지나치게 대칭성이 강조된 경우는 경직성, 정서에 대한 강박적인 통제, 억압과 과도한 주지화를 반영한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도 경직된 대칭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아. 투명성 (Transparency)

현실 접촉의 빈곤함을 반영한다.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미성숙하거나 적응상의 문제, 기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반영한다. 청소년의 경우 빈곤한 자기 개념이나 부적응을 반영한다. 성인의 경우 판단력의 결핍, 정신병적 상태, 속이 보이는 인물화의 경우 관음증이나 노출증 등의 성적인 갈등과 관련될 수 있다.

자. 위치 (placement)

그림이 상단으로 치우친 경우는 높은 욕구 및 기대 수준,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에 대한 높은 성취 욕구, 현실보다는 환상이나 공상을 통한 만족 추구 경향, 자신에 대한 불확실감을 반영한다. 이에 비해 하단으로 치우친 경우는 불안전감, 부적절감, 우울한 상태, 확고하게 현실에 뿌리를 두고

확실하고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을 시사한다. 지면의 밑바닥이나 가장 자리를 이용한 그림은 불안정감, 자기확신의 부족, 의존적인 경향, 새로운 경험을 회피하는 경향성 등을 나타낸다.

종이의 중앙에 그리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안정감을 반영한다. 오른쪽으로 치우친 그림은 안정되고 욕구 및 행동 통제가 잘 되는 경우, 지적 만족을 추구하고 내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경우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왼쪽으로 치우친 그림은 충동적인 행동화 경향,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 외향성,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 왼쪽 상단 구석에 그리는 경우, 사회적으로 철회되어 있거나 불완전한 느낌, 주저함, 불안, 등과 관련 될 수 있다. 어린 아이일수록 이 위치에 그리는 경우가 많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가운데에 그리는 비율이 높아진다.

차. 지우기 (erasure)

그림을 자주 지우는 것은 우유부단함, 자신에 대한 불만족, 자신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우기를 반복하여도 그림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불안이나 갈등을 나타내는 단서가 된다.

3. 개별 그림의 해석

가. 집 그림의 해석

집은 가정 생활과 가족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 피검자의 물리적인 집을 나타낼 수 있고 과거에 살아왔던 과정을 그릴 수도 있다. Buck(1978)는 집 그림의 필수적인 요소로 문, 창문, 벽, 지붕 등을 든다. 6세 이상의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림에서 이것들 중 하나를 빠뜨렸을 경우 일시적인 지능 감퇴나 심각한 정서 장애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집 그림을 통해 내담자의 환상, 자아기능, 현실 검증력, 가정 상황에 대한 지각 등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1) 지붕

지붕은 환상적인 영역을 반영하는데, 지나치게 큰 지붕은 환상이나 공상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환상이 정신기능을 왜곡시킬 때는 손상된 지붕의 형태로 표현된다. 지나치게 작거나 일자형 지붕은 환상 능력이 없음을 시사하며 정신지체 환자나 지나치게 억제된 정상인에게서 나타난다.

(2) 벽

벽은 자아강도(ego-strength) 및 자아의 적절성과 관련된다. 경계선이 지나치게 강조된 벽은 무너지려는 자아기능을 유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반영해 incipient psychosis에게서 자주 보인다. 부서진 벽은 자아 통합력이 약화된 것을 반영하며, 벽에 그린 선의 질이 나쁠 때는 자아기능의 부적절성이나 자아붕괴의 조짐을 반영한다.

투명한 벽으로 인해 집안 내부가 그려진 경우, 아동의 경우에는 개념형성의 미숙으로 볼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현실 검증력의 손상, 정신지체나 뇌의 기질적 장애, 정신병에서 주로 볼 수 있다.

(3) 문

문은 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가능케 하는 곳으로, 문이 없거나 크기가 아주 작은 문은 대인 관계에 대한 두려움, 타인과 환경과의 접촉으로부터 철회되어 있는 상태로 사회적인 능력이 억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과도하게 큰 문은 의존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열린 문은 타인의 온정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며 잠겨있는 문은 편집증적인 방어를 나타낸다.

(4) 창문

창문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이차적 매체이다. 셔터나 커튼이 드러워진 창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반영한다. 빗장이 잠겨 있는 창문은 집이 안전하길 원하거나 집을 감옥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부분적으로 열린 창문은 대인불안을 반영 한다.

(5) 굴뚝

굴뚝을 여러 번 덧칠했거나 크기를 강조한 경우는 가족의 온정에 관한 지나친 걱정, 남성성에 관한 성적인 관심 등을 나타낸다. 연기가 많이 나는 굴뚝은 가정 내의 긴장감을 나타낸다.

(6) 조망

아래에서 올려다본 그림(Worm's eye view)는 가정 내에서 거부당하는 느낌과 열등감, 낮은 자존감을 나타낸다.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Bird's eye view)는 가정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해 반항하는 태도를 시사한다. 집의 뒷부분을 그리는 것은 방어적인 철회 성향, 반항적인 고회피적인 편집증 환자들이 곧잘 그린다. 공중에 떠 있는 집 그림은 정신 분열증에서 많이 나타난다.

(7) 기타

지시와 상관없는 집 주변의 덤불이나 나무 화초 등을 그리는 것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시사한다.

울타리는 방어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나. 나무 그림의 해석

나무는 심층적이고 무의식적인 자기상을 대변한다. 사람들은 나무를 그릴 때 가장 감정 이입적인 동일시를 느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직접 드러낸다는 느낌이 적어 보다 깊고 지속적이며 무의식적인 감정과 갈등을 반영한다(Hammer, 1958). 따라서 나무그림은 집중적인 심리 치료를 받지 않는 한 쉽게 변하지 않는다.

(1) 기둥 (trunk)

나무의 기둥은 자아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내적인 힘을 나타낸다. 희미하거나 스캐치, 또는 단절된 선으로 그린 기둥은 정체감 상실의 위기감과 불안감을 반영한다. 상처 난 기둥은 외상 경험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바람에 꺾인 기둥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긴장감이 주어지고 있는 상태를 반영한다.

기둥에 구멍이 뚫리고 그 안에 벌레나 동물을 그린 아동의 경우, 나무보다는 벌레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따듯하고 보호받던 자궁 내적 존재로 퇴행하고 싶은 염원을 담고 있을 수 있다. 기둥에 음영을 그린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적절감이 내재되어 있거나, 신체화 장애, 우울증 등을 반영한다.

뿌리에서 가지까지 나무의 발달은 psychological life history에 비례한다. 따라서 초기 경험의 흔적은 기둥 아래에서 나타나고, 보다 최근의 것은 가지 위쪽에서 나타난다.

(2) 뿌리 (root)

뿌리는 성격의 안정감을 반영하며 더 나아가 현실접촉과 관계가 있다. 뿌리를 강조하는 경우는 현실 접촉을 과도하게 염려하는 상태를 반영한다. 독수리 발톱 모양으로 땅을 움켜쥔 뿌리는 현실과의 접촉이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나타내며, 땅속으로 투명하게 보이는 뿌리를 그리는 것은 명백한 현실 검증의 손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균이상의 지능을 가진 성인이라면 정신분열증적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종이 밑바닥에 붙여 그린 나무 그림은 안전감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적 노력을 나타낸다.

(3) 가지 (brench)

가지는 환경으로부터 만족을 얻어내는 능력을 가리키며, 인물화의 손, 팔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타인과의 접촉 및 환경으로부터의 만족과 성취를 구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주관적인 내적 자원을 표상한다. 가지가 멀어질수록 가늘어지고 줄기에 비해 크기가 적절할 때는 환경으로부터

만족을 추구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위쪽을 향하는 가지는 현실에서 만족을 취하는 데서 두려움을 느껴 환상 속의 만족으로 대치하는 경우에 나타나며 높은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schisoid한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종이 끝에 의해 위가 잘린 나무 그림은 지나친 환상 탐닉을 의미한다. 반대로 아래쪽을 향하는 가지는 우울이나 과거에 고착된 경향을 나타낸다.

가지 끝이 열려 있는 경우(Open-ended branch)는 충동 통제의 곤란을 반영하며, 곤봉이나 창, 철조망 가시와 같은 가지는 강렬한 적대감과 공격성을 나타낸다. 부러진 가지나 끝이 잘린 가지는 외상의 느낌을 표현한다. 가지 끝을 동글동글한 숨 모양으로 그린 경우는 부드러운 매너의 사람으로 비난받지 않으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해에 닿으려고 애쓰는 가지는 애정 욕구가 좌절된 아동에게서 때로 나타난다.

(4) 기타 중요한 지표들

- 열쇠구멍 모양의 나무 (Keyhole tree) :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피검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며 검사 지시에 최소한의 동조만 한 경우이다.
- Split tree : 나무가 갈라져서 통합되지 않게 그려진 경우로 성격 와해를 반영한다. 정신분열증의 강력한 지표이다.
- 비바람이나 폭풍우에 부러진 나무 : 치명적인 환경의 압력을 반영한다.

(5) 나무 그림의 주제

- 죽은 나무 : 심한 절망감이나 부적응 상태를 반영한다. 나무가 죽은 이유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기생충, 바람, 번개 등에 의해서 죽었다는 식의 외적 이유를 말하면 외상적인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뿌리나 몸통, 가지가 말라 죽었다는 식으로 내적 이유를 말하면 부적절감이 깊을 가능성은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철회된 내담자, 심한 신경증적 장애에서 볼 수 있다.
- 다른 사람이 자를 것 같은 나무 : 임박한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다.
- 과일나무 : 임산부에게 흔하다. 어린이에게 과일나무는 어머니 상이다. 어머니로부터 거절당한 느낌이 있는 아이는 떨어진 사과로 자신을 표현한다.
- 버드나무 : 우울감을 반영한다.
- 나무의 나이 :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사회적, 성적 성숙을 반영한다.

다. 사람 그림의 해석

인물화는 심리적인 자화상으로서 의식적인 자기 모습이다. 또한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의식 수준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반영한다.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이 큰 사람이 실패에 대한 공포를 가장 잘 느끼는 검사이기 때문에 피검자로부터 가장 많이 거부당하는 검사이며,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검사이기도 하다. 인물화에서는 신체적 자아나 심리적 자아가 표현되어 어떤 경우에는 놀랄 만큼 내담자와 그가 그린 그림이 닮아 있다. 또한 생리적 신체적 심리적 약점을 보상한 매혹적인 모습을 그리기도 한다. 청소년기에는 이상적 자화상을 그리는 경우가 많고, 아동의 경우 부모의 이미지를 그리는 경우가 많다.

(1) 정상 성인의 그림

- 그림이 종이의 2/3크기, 약 10~12분 정도 소요
- 그림이 중앙이나 약간 중앙 하단에 위치
- 머리와 얼굴을 먼저 그린다.
- 정상적인 요소간의 비율, 자연스럽고 활동적이다.
- 비교적 대칭적이고 유쾌한 느낌을 준다.
- 적게 지우고, 지우고 나서 그림이 개선된다.
- Line quality가 일정한 필닙을 유지하며 안정되었다.
- 동성의 그림을 먼저 그리고,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보다 자세하게 그린다.
- 남성의 이차성징은 넓은 어깨, 짧은 머리, 작은 엉덩이 등으로 나타난다.
- 눈에 동공을 그리거나 코에 콧구멍을 그리지 않는다.
- 옷을 그리면 남자의 경우 벨트를 그린다.
- 다리와 귀는 강조되지 않는다.
- 그림에서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유머로 받아들인다.

(2) 그림 순서 (sequence)

대부분의 사람들은(85~95%)이 자신과 동성의 인물을 그린다. 반대 성을 먼저 그린 경우는 성 정체감의 혼란이나 갈등을 느끼는 피검자이거나, 이성에게 강하게 의존하거나 애착을 보이는 피검자일 가능성이 있다.

(3) 움직임 (motion)

활발한 움직임은 신체적 활동에 대한 강한 충동을 반영하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적극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경조증이나 히스테리 성격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딱딱하고 굳은 자세는 내면적으로 깊은 갈등을 엄격하고 완고하게 통제하는 경향을 시사한다. 앉거나 누운 자세는 흔히 활력 수준이 낮고 동기가 부족하며 정서적으로 지친 상태를 시사한다.

(4) 머리와 얼굴

대부분이 맨 처음 그리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자아개념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다. 지나치게 큰 머리는 자기 과장이나 지적 영감을 가진 경우, 두통이 심한 경우 등에서 나타나며, 희미하게 그린 머리는 자기를 지나치게 의식하며 소심한 성격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그린 경우는 사고 장애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아야 한다.

눈이 크고 응시하는 표정은 편집증 경향의 가능성이 있으며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민감한 경향을 나타낸다. 코는 보통 성기의 상징으로 해석되는데, 큰 코는 흔히 남성 갱년기 우울증이나 부적절감을 느끼는 청소년에게서 나타난다.

입이 강조된 경우는 구강기로 퇴행하는 경향, 의존적인 경향 등을 반영하며 치아를 드러낸 입은 공격적이고 가학적인 경향을 반영한다. 입을 하나의 선으로 나타낸 경우는 상당한 긴장을 시사한다. 입을 생략하는 것은 심인성 호흡곤란, 우울증, 대화의 거부 등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수염을 그리는 것은 성적 부적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식 능력에 대한 보상 노력과 관련된다. 귀는 거의 잘 그리지 않지만,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면 청각적 손상이나 환청, 관계망상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지적인 통제와 본능적인 충동을 연결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 팔과 손

팔과 손은 환경이나 타인과의 접촉을 반영한다. 손을 안 그린 경우는 외부와의 접촉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반영하며, 팔의 생략은 죄책감, 심한 우울증을 시사한다. 신체 뒤로 가려진 손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경향을 반영하며 주먹 쥔 손은 억압된 공격성을 시사한다.

(6) 신체 부위의 왜곡과 생략

빠뜨린 영역은 심리적 갈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인 관계에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 손을 잘 그리지 못하며 관음증 환자들은 흔히 눈을 빠뜨리거나 감고있는 그림을 그린다.

(7) 그림의 내용

어릿광대, 만화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자신에 대한 적개심, 혐오감, 거부당하거나 부적절감을 느끼는 청소년에게 많이 나타난다. 마녀, 또는 마녀 같이 묘사된 여자 그림은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반영한다. 발가벗은 그림은 성적인 부적응, 관음증, 노출증 경향을 나타낸다.

4. 그림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

HTP는 Rorschach나 TAT 보다 정보량이 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적 자원이나 상상력이 빈곤한 사람의 경우에는 외적 자극이 있어야 투사를 더 잘 일으킬 수 있으므로, HTP 검사가 다른 투사 검사에 비해 정보를 많이 주지 못할 수 있다. 또 Freud가 ‘하나의 상징, 증상, 행위나 산물들은’ 57개의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한 만큼, 단순화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모든 그림은 그것이 산출된 역사가 있다. 한 사람의 그림은 개인의 독특한 경험의 장으로부터 산출된 것이고 똑같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것은 다른 장의 산물이다. 어떤 그림을 해석하고자 할 때 이론이나 지침서에서 부여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를 끌어내기보다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징은 그런 사람만의 독특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자’ 그림은 어떤 경우는 남성 성기를 상징하지만, 다른 경우는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고 때로는 사회적 지위나 특권, 억압 등을 상징할 수도 있다.

그림 검사를 해석할 때, 그림이 주는 전반적인 인상이 분자적인 수준의 세부요인보다 더 가치가 있다(Coopersmith, Dokol, Beardslee, & Coopersmith, 1976; Levy, 1959). 민감한 심리 평가자라면 그림에 나타난 “prevailing mood”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주된 정서가 불안한가, 우울한가, 아니면 이완되어 있고 행복한가를 파악해야 한다.

모든 상징은 내담자에 따라 독특한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해석자가 지닌 첨조체계나 이론적 견해에 따라서도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단지 그림만을 토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고, 반드시 다양한 검사 자료를 종합해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결과들에 비중을 두어 해석해야 한다.

III. 사례 : 공부를 안 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부모와 다투는 중 2 여학생

1. 주된 문제

- **공부 문제 :**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책상에서 공상을 많이 한다. 과목별 성적 차이가 심하다. 좋아하는 건 잘 하지만 읽고 이해하는 과목은 부진하다. 석차는 중하위권. 학원 다녀도

효과 없다.

- 일상 생활의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다 : 학급 총무인데, 돈을 못 맞추고도 걱정하지 않는다. 부모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키웠는데, 느리고 가끔 약속을 안 지킨다. 주변을 어지르고 행동이 느리다. 숙제하라고 하면 딴 짓만 한다.
- 부모 말을 안 듣는다 : TV 연속극 보지 말라 했더니, 그거 안 보면 애들과 얘기가 안 통한다며 문 잠그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2. 가족 관계

부(43) : 박사, 전문직, 조용하고 고집이 세다. 행동 느리고 주변을 어지른다.

MMPI : 59 33 68 / 45 45 44 49 52 43 45 43 30 58

모(43) : 박사, 전문직, 신경질 많고 화를 잘 낸다. 완벽주의자. 책임감이 강해 아이에게 강요하고 지나치게 야단칠 때가 있다. 모가 마음이 조급해 아이를 불잡고 가르치려 하고,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화가 나 소리 지른다. 성격을 고치고 싶은데 안 된다.

MMPI : 57 37 68 / 58 62 69 57 50 47 65 46 45 43

부모의 양육방식 : 진보적이면서도 엄하고 보수적

3. 발달력

부모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출생. 아기 때 부모와 안 떨어지려 했는데, 모가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 2세 반에서 3세까지 6개월 간 부와 조모가 양육하였고, 4세-5세까지 1년 간 한국에 아이만 나와 있었다. 부모가 귀국한 후 부는 서울에, 모는 지방에서 근무. 주말부부. 내담자는 부가 데리고 있었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부모가 봐 주지 않아도 1등 했다. 3학년 때 1년 간 부모와 함께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도 잘 적응했다. 귀국 후에 부모가 바빠서 아이 공부를 돌봐주지 못했고, 성적은 중간 정도. 이때부터 할 일을 미루는 버릇이 생겼다. 부가 데리고 있으면서 자주 같이 놀아줬지만 공부는 봐 주지 않았다. 초 6학년 담임이 아이가 자기 주장이 강해 힘들고 주의가 산만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친구 관계는 좋았다. 중학교 올라와서는 반장으로 뽑히고 학교 생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다른 아이처럼 과외를 하고 싶어했지만 부모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안 시켰다. 부모는 과외 안 해도 잘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성적이 떨어지니까 아이가 자신감을 잃었다.

4. 성격 특성

본인 평 : 매우 느긋하다. 미루고 급하지 않다. 물건 잘 잊어버린다.

부모 평 : 어릴 때부터 무던하고 적극적, 무서움이 없었다. 많이 다쳤지만 부산할 정도는 아니고 하는 일에 몰두하고 차분한 편(만들기 등). 운동을 좋아했다. 학교에서 청소 잘 하고 봉사 동아리에 들고 나이 어린 아이들을 챙겨준다. 너무 느긋해 답답하다.

5. 심리 검사

가. 첫 면접과 심리검사 태도

(시무룩한 표정으로 들어옴)

(여기 어떻게 오게 되었나?) 부모가 가자고 해서 왔다. (이유는?) 모른다. (그때 기분?) 별 기분 없었다. (요즘 힘든 것?) 없다. (공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데 많이 남지 않는다. 근데 좋아하는 노래는 금방 다 외운다. (암기력이 좋네?) 암기는 못한다. 수학, 영어는 90점이 넘는다. 과학, 사회 못한다. (공부가 힘든가?) 별로 그렇지 않다. (본인은 안 힘든데 부모님이 지나치게 신경?) 그렇다. 모가 잔소리 많이 한다. 왜 TV 많이 보냐고. 그럴 때는 속으로 욕한다. (모로 인해 힘들겠다. 다른 힘든 것은?) 없다. (친구나 학교생활은?) 1학년 때부터 친한 친구들 있다. 아는 언니들에게 인사하고 편지 쓰고, 생일 때는 축하한다고 말한다. (심리검사 받아보기로 함.)

심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실에 들어오면서 대기실에 놓여 있던 곰인형을 품에 안고 들어왔으며 자신이 곰인형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잘 들고 다닌다고 말하였음. 父母가 면담하러 다른 방에 들어가는 소리가 나자 왜 들어가는지를 따지듯 물었음. HTP 검사시 “캐릭터처럼 그려도 돼요?”라고 물어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그림 검사가 끝날 때까지 그림과 관계된 말이나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계속하였음. “엄마는 내가 미술에 소질 있다고 하는데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거에도 뭐 있어요?” 라며 검사의 의도에 대해 물었고, 나무와 사람 그림을 그릴 때는 자신 없다고 하였음. “갑자기 그림 그리라니까 생각이 안나요. 미국 집인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제일 자신 없는데, 가지가 참 … 수채화 그릴 때도 나무에서 멈춰져요. 나무 안 같은데요. 따라서 보고 그리는 건 잘 그리는데,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창의력에서.” 사람 그림을 그릴 때는, “손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자세히 그리면 안 좋죠?” 얼굴 표정 그리는 것은 제일 뒤에 그림. “너무 만화처럼 그런 것 아니예요?” 지능검사시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행을 하였으

나 자신의 반응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자주 하였고 어떤 소검사에 대해서는 “이게 뭘 알려고 하는 거예요?”라고 물기도 하였음. 로샤 검사시 카드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반응을 많이 하였음.

나. 심리검사 결과

- 1) BGT : WNL(recall=8).
- 2) Intelligence : High Average Level(FSIQ=117 : VIQ=108 : PIQ=125)
- 3) Emotionality : depressive, anxious, angry, & over-sensitive
- 4) Suggestive of Mild emotional problem due to problematic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Mother's Personality problem)

* MMPI : 46 62 49 / 51 43 54 64 48 82 51 61 53 50

(1) 외현상 문제

성적 부진, 할 일 미루고 자신감과 의욕 부족, 부모와의 다툼

(2) 내재된 문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의존 욕구,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 정서 불안과 무력감, 분노감이 내재되어 있음. 대인 관계에서 신뢰감이 부족하고 매우 예민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전반적인 의욕과 인내심, 학습 동기 부족, 힘든 일 회피.

(3) 잠재력

높은 지능, 기본적인 자기 개념은 비교적 양호함. 친구에 대한 관심 있음.

6. 상담 목표

- 좌절감, 정서 불안과 무력감 극복, 분노감정의 해결, 자신감과 의욕 회복
- 힘든 일 견뎌내기, 스트레스에 적극 대처하기(숙제, 시험 준비 하기 등)

방법) 정서적 지지, 부정적 감정 정화, 부정적인 인지 수정, 효과적인 자기 표현 훈련, 부모 교육(자녀와의 대화 방법, 부모의 성격 문제 교정 등)

7. 상담 과정 요약

1회기

(상담 목표?) 생각 안해 봤다. 힘든 것 없다. 성적은 10점 정도 오르면 좋겠다. 학원에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 수학 과외는 따로 한다. 오늘은 엄마가 따라왔는데, 나 혼자 올 수 있다. (상담 목표?) 성적 향상, 엄마와 편해지기.

2 - 4회기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얘기, 학교가 싫다는 얘기 등 일상생활의 얘기들

5회 - 10회기

전학 후 적응 어려움. 내 첫인상이 안 좋다. 애들이 내 눈초리가 무섭다고 한다. 학교 힘들다. 내가 못 생겼다.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신경질 난다.

11 - 14회기

새로 사귄 친구들 얘기. 남자 친구에 관심 생김.

15 - 20회기

성적 나쁘다. 부모가 나에게 기대 커서 스트레스 받는다. 남자 친구와 잘 지낸다. 성에 대한 관심과 질문 많아짐.

21 - 30회기

엄마는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엄마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한다. 공부는 그럭저럭 한다. 성적은 잘하는 것은 아주 잘 하고(영어, 수학), 떨어진 것도 있다. 다이어트 해야 한다.

3개월 후 추수 면담

요즘 공부 열심히 한다. 장래 희망도 정했다. 건축 설계사 공부를 할 예정이다. 지금 영어 공부 많이 하고 있다. 나중에 2층집 지어서 부모님과 같이 살겠다.

* 상담 효과

학습 동기 향상, 공부에 대한 자신감, 진로 결정, 부모와의 관계 개선

참고 문헌

- Buck, J. N.(1978). The H-T-P technique :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coring manual.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 317-396.
- Burns, R. C., & Kaufman, S. H.(1972). *Actions, styles and symbols in Kinetic Family Drawings(K-F-D): An Interpretative Manual*. New York : Brunner/Mazel.
- Coopersmith, S., Dokol, D., Beardslee, B., & Coopersmith, A.(1976). Figure drawing as an expression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0, 368-374.
- Hammer, E. F.(1958). *The clinical Application of Projective Drawings*. Springfield, IL : Charles C Thomas.
- Koppits, E. M.(1968). *Psychological Evaluation of Children's Human Figure Drawing*. New York : Grune and Stratton.
- Levy, S.(1959). Figure drawing as a projective test. In L. E. Abt & L. Bellak, *Projective psychology*. New York, Grove Press Inc.
- Machover, K.(1949). *Personality Projection in the Drawing of the Human Figure*. Springfield, IL : Charles C Thomas.